

지역 매아리



고창군, 장애인 한미당 축제 성료

지역 장애인들이 함께 하는 '2017 고창군 장애인 한미당 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28일 고창테크산업스퀘어에서 열린 행사는 고창군장애인후원회(회장 박현규)가 주관해 장애인들의 재활의욕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회적 관심과 인식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박우정 고창군수, 4개 단체 장애인회장과 지역 장애인과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가야금과 색소폰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식전행사와 함께 장애인들이 직접 꾸민 우쿨렐레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장애인 여가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장애, 비장애인의 이해와 화합을 증진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지역 장애인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꿈을 펼치고 재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와 주택개조사업, 활동자원을 비롯해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 종합적인 복지 및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춰가고 있고 앞으로 차별과 편견 없이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세심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서, 아동안전지킴이 교통안전 직무교육 실시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가 관내 활동 중인 아동 안전지킴이 어르신 28명을 대상으로 아동보호 활동의 효과성을 높여 주는 직무교육을 지난 28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위 김희열)이 직접 강의를 맡아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을 시청하고 부안 관내의 교통상황과 현황에 대해 설명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교육 후에는 활동 중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아령반사지와 쉼터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 홍보용품도 함께 배부했다.

아동안전 지킴이는 경찰의 부족한 순찰인력을 보조하여 관내 초등학교 하교 시간대 통학로와 놀이터, 공원 등에 배치되어 아동범죄예방 순찰 및 교통안전 지도 등 아동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동학농민혁명국가기념공원 조성사업

국가예산 확보 '청신호'

동학농민혁명특별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2소위 통과

동학농민혁명국가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국가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8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동학농민혁명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소위를 통과하고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국가기념공원 조성 사업 국가예산 확보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전) 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요구,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관련해 김성기 시장은 당초의 정부의 약속인 전액 국비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관계자 등을 만나 국비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고 국비 확보 협조를 요청하는 등 그간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시장은 법사위 소위원회 법안 처리 당일에도 법안처리 과정을 지켜보다. 특히 법안 처리 전에 소위 위원인 박주민 의원을 별도로 만나 관련법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등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김시장은 "동학농민혁명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동학농민

혁명국가기념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가 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김시장은 같은 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후덕 예결위 간사, 안호영 예결위원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비롯 국립전북 기상과학관 기상인체험교육관 시설 확충 사업, 월령 습지 토지매입, 정읍 우체국 이전 사업 등 정읍시의 현안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역 균형 발전·교통체증 해소 '기대'

정읍시, 작은말고개 도로 내달 말 개통... 연장 878m, 폭 20m 4차선

내장상동 상동화관과 구룡동 영창아파트를 잇는 작은말고개 도로가 내달 말 개통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착공 이후 공사를 추진해온 공사가 내달 중순경 마무리되고, 말경 본격 개통된다.

현재 공진률은 약 90%이다.

작은말고개 도로가 본격 개통되면 시 남부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과 시내 중심도로인 동초등학교 사거리 교통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은말고개 도로 개설에는 총사업비 72억원이 투입됐다.

상동화관 사거리에서 구룡동 영창아파트 입구를 잇는 도로로, 연장 878m, 폭 20m의 4차선이다.

시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도로 개설 요구가 높고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2015년부터 실시실제, 편입 용지 보상을 거쳐 지난해부터 장기계약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했다.

1차적으로 상동화관에서 대은사 앞까지 200m 도로를 개설한데 이어 올해 2차로 대은사 앞에서 영창아파트



내장상동 상동화관과 구룡동 영창아파트를 잇는 작은말고개 도로가 내달 말 개통된다. 상동화관 사거리에서 구룡동 영창아파트 입구를 잇는 도로로, 연장 878m, 폭 20m의 4차선이다.

입구까지 678m를 개설 중이다.

공사와 관련, 시는 작은말고개 정상 부근에 약 250년 이상된 느티나무가 도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 차선을 분리 시공해 유형자산 보호와 도로변의 경관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개설에 따른 동물 서식처 양분화와 질편화를 방지하기 위해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김성기 시장은 "작은말고개 도로가 개통되면 출·퇴근시간 동초등학교 교차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켜 원활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지진피해의 아픔을 함께 부안군, 포항시에 지진피해 구호물품 전달

부안군은 지진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도시인 경북 포항시를 찾아 1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지진피해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29일 부안군은 포항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모포와 쌀 라면 등의 구호물품을 전달했으며 이 물품들은 포항시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으로 준비됐다.

앞으로 부안군은 자매도시인 포항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수시로 파악해 응급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이연상 부안군 부군수와 황창호 부안군 공무원노조 지부장, 김만호 서해로터리 회장 등 14여

명은 이날 포항시 현지를 찾아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빠른 피해복구에 힘을 보탤다.

김종규 부안군수도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에게 구호물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조속한 복구를 위해 부안군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호물품 전달 및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만호 서해로터리 회장 역시 "부안군과 자매도시인 포항시가 이번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가슴이 무척 아프다"며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안군민들과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위로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지역 만들기 앞장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한국인의 분향이란 슬로도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을 건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국내 유일의 생태환경도시로 도로, 하천, 야산 등의 청결운동은 물론 고창갯벌복원, 운곡습지 생태보존, 고창읍성 주변정비, 자연마당 조성, 청솔재 생태공원 조성, 국가 생태문화 탐방로 사업 등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에도 역점을 두고 군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생활환경 개선사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클린하우스 농어촌 페스티벌 집하장 보

급사업 등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없애기 위해 마을 진입로 경작로, 배수로, 소화천 정비 사업을 매년 확대해 아름답고 청정한 고창 건설의 기반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군정 목표에 발맞춰 고창읍에서는 주택 밀집지역 골목길을 밝게 가꾸기 위해 '정답길(신성동)' 정비사업과 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문화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내부 리모델링과 운곡습지에서 자생하는 고창의 '야생화 벽화(제일공원)'를 담아 화장실이라는 이미지 개선은 물론 주민의 정서 함양에도 기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아산병원, 순회 무료 진료 활동 펼쳐

정읍시와 정읍아산병원이 지난 28일 태인면 원오봉마을에서 순회 무료 진료 활동을 펼쳤다.

이번 진료는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 지역응급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골든타임 사수' 서남부권 광역 응급진료체계구축사업과 관련한 거점단위 순회 출장 무료 진료 일환으로 마련됐다.

관련해 시는 "서남권 응급진료체계 구축사업 거점단위 순회 무료 진료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인 어려

움으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시와 아산병원은 이번 (정읍)시범 운영에 이어 내년부터는 두 달에 한 번씩 정읍과 고창, 부안을 순회하며 무료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전개하며, 단순 진료에 머물지 않고 위험군 관리를 위한 사후 연계서비스도 구축해 더욱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선택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ANGSANMYEONGJU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번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호 | 750ml 1ea/12% |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호 | 375ml 5ea/13% | GIFT SET 6호 | 500ml 3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부안강산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